



OEHANA

www.pcce.wmu.edu Issu Date Jul. 2024



Table Of CONTENTS



04_ CHRISTIAN EDUCATION COLUMN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믿음이 자라도록 돕는 것 / 가진수

10_ MY UTMOST FOR HIS HIGHEST

나의 순종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까?
주님과만 홀로 있기

12_ PRAYER FOR CHILDREN

시와 찬미가 넘치는 가족

14_ KOREAN TRADITIONAL CULTURE

공기를 던지고 받고 쥐면서 노는 놀이 '공기놀이'
진놀이의 어린이 버전 '나이먹기놀이'

16_ WEEKLY BULLETIN OF FAMILY WORSHIP

가정예배 순서지(7월, 8월)



Pacific Center for Culture and Education

PCCE는 성경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정신을 교육과 문화를 통해 전파하고 실현하는 기관으로 릴리재단(Lilly Endowment)과 World Mission University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PCCE는 미국내 한인교회와 한인가정의 기독교교육 그리고 1.5세와 2세 어린이들의 신앙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특히 가정예배와 세대간 예배의 보급을 통해 다음 세대를 거룩한 그루터기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기독교교육을 위한 다양한 리서치와 콘텐츠를 제공하며 크리스천 부모교육도 실시합니다.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믿음이 자라도록 돕는 것

서문

최근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다. 교회가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계속 이어가는 것이 의무이며 특권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갈수록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며, 교회 역시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신앙의 강건함과 유대감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성인들뿐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신앙의 미래는 없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세 가지, 찬양과 기도, 말씀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곧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곧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된다.

이 논문은 교회의 중요한 기둥인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믿음이 자라도록 돕기 위한 것이며, 여기서는 특히 예배의 본질을 다루고자 한다. 더 나아가 통합 예배를 통한 실제적인 어린이들의 신앙 양육과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겠다.

1. 통합 예배의 필요성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주일학교는 18세기 말 필라델피아에 주일학교협회가 생기면서 발전되었고,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들을 통해 들어오게 되었다. 이후 한국의 모든 교단에서 수용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주일학교는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게 되었는데, 그것이 예배다. 예배를 각각 따로 드리다 보니, 주일학교 예배는 주로 부교역자들이 설교를 하게 되었고, 담임목사의 말씀의 통일성을 잃어가는 단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족이 예배에서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게 되면서, 특히 어린 자녀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성장해 가는지 알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7-80년대 어린 시절에 신앙 생활한 분들은 대부분 교회의 모든 장년 예배에 참석했었다. 당시 말씀에 대해 잘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중요

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모든 예배에 부모 세대와 함께 예배 드리면 점점 성장해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나는 주일학교 예배는 장년들과 모두 한 자리에서 함께 드리고, 성경 공부나 분반공부, 기타 프로그램은 예배가 끝난 후 각각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 모든 세대가 자주 함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좋다. 부모와 어린 자녀가 함께 예배에 참여해, 들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그 말씀에 대해 어린 자녀에게 묻고 대답하며 신앙의 성숙을 돕고 확인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끔은 자녀들도 말씀의 궁금증으로 인해 부모에게 물어보기도 한다.

한국교회에서의 주일예배는 어린이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물론 그들은 각각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예배는 근본적으로 공동의 잔치다. 그들과 함께 드리는 공동의 예배가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통합 예배에서의 찬양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 교회의 담임목사와 예배의 지도자들은 공동의 찬양을 설문 조사하여 취합하고, 어린이와 장년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부르는 찬양들을 수렴해 나간다면 좋을 것이다.





2. 통합 예배의 내용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 어린이들을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열쇠가 '예배'라면 어떻게 예배를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깊은 영적 교제로 이끌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요소들, 즉 찬양, 기도,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첫째, 찬양의 균형이다. 주일 장년 예배에서 1세대가 선호하는 찬송가(Hymns)와 합창(Choral) 중심의 찬양과 다음 세대들이 선호하는 '찬양과 경배(Praise & Worship)' 스타일의 찬양이 균형 있게 불릴 수 있어야 한다. 한국 교회 대부분의 주일 예배는 1세대의 찬송가 선호로 인해 찬송가를 고집하는 경향이 강하다. "1세대 장년에게 왜 주일예배에 찬송가만을 고집하는가?"라고 물으면 찬송가가 위엄 있고 거룩하기 때문이라 말

한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자신이 아는 찬양과 4부 형태의 성가의 형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에 있음을 기억하자. 1세대의 거룩한 섬김과 양보를 통해 예배에서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갈 수 있다. 1세대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다음 세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모든 예배에 부모 세대와 함께 예배 드리면 점점 성장해갔다는 사실이다.

둘째, 기도에 참여시켜라. 요즘 예배 중 가장 어려운 분야가 기도라고 한다. 사실 기도만큼 강력하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다. 그럼에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시간은 짧아지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도 기도의 약함은 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한국에는 참으로 기도원이 많았다. 당시 어린이들의 모든 수련회는 대부분 기도원에 갈 정도로 기도의 열정이 있는 시기였다. 하지만 지금 기도하는 어린이들을 예전만큼 찾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지금의 어린이들에게 그 당시 기도원 집회가 하루에 6번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대답이 어떨지 궁금하다. 과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식상하게 받아들이겠지만 기도는 양과 질과 시간에 비례한다. 요즘은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에서도 기도에 참여하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기도는 점점 교사들과 설교자와 리더들의 몫이 되어가고 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가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배려해야 하며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능동적인 기도의 참여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통성기도나 합심 기도를 늘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셋째, 말씀을 강화하는 것이다. 오래전 교회의 주일학교 모임에는 말씀 암송대회를 비롯해, 성경을 틀리지 않고 읽는 대회, 성경 퀴즈대회 등 다양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시



Christian Education Column

간들이 많았다. 나의 주일학교 시절에는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시간도 많았다. 성경을 접할 기회가 많았으며, 뜻을 잘 알진 못해도, 성경의 인물과 사건은 충분히 기억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지금의 예배에서 어린이를 위한 성경공부 시간과 열정은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빈약함은 영적 능력의 약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에게 조금 더 말씀을 가까이할 수 있는 강한 목적의식이 1세대에게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금의 시대가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학업 경쟁이 치열한 시대라 할지라도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자주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한다. 주일예배를 포함해 자주 말씀을 낭독하고 외우고 말하게 해야 한다.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늘 암송하고 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넷째, 성찬에 능동적으로 참여케 하라.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재림에 대한 소망, 기쁨이 담겨있는 예배에서 가장 상징성이 강한 예배 예식이다. 그럼에도 성찬은 지금의 시대에 가장 약화된 예식이 되어버렸다. 웨버 박사는 지금의 교회가 가장 회복되어야 할 예배의 요소로 성찬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찬이 회복되지 않는 주일예배는 갱신되지 못한 예배로 남아있게 되며, 고대의 성찬 예식이 회복되어 미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경적인 참된 예배라고 주장했다.

요즘 들어 편리함으로 인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빵과 포도주를 앞에 갖다 주는 성찬식이 점점 많아지는데, 성찬식은 무조건 앞으로 나와야 한다. 그것이 성경적일 뿐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예식에 참여하는 마음 자세를 갖출 수 있다. 어린이들이 예배에서 능동적인 마음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나오게 하여 직접 빵과 포도주를 떼고 마실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좀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혹 세례(침례)를 받지 않은 어린이들은 성찬에 참여는 하지 않지만, 함께 나오게 해서 머리 위에 안수기도를 해주면 참관자가 아니라 참여자의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예배는 편한 것이 아니다.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주 기억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고 불편하게 만들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자. 위기의 시대가 도약할 시기다. 조금만 영적인 눈을 들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어린이는 끌어안아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즉시 교회의 '주인'으로 대우해야 한다.

3. 통합 예배의 성찬 회복

어린이를 위한 성찬은 중요한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예배의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어린 세대들은 1세대에 비해 시각을 포함한 공감각이 뛰어나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중요한 예배의 예식이다. 최근 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찬 예식은 점점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모든 교회 공동체의 예배의 감동을 위해서라면 성찬 예식의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성찬 예식은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이상적이다.

성찬의 준비는 세 가지 점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성찬'의 성경적 의미를 되살리면서 진행하는 것이고, 둘째, 세례(침례)를 받지 않은 자녀들도 모두 나와서 머리에 축복 기도해주는 것이며, 셋째, 성찬 예식에서의 찬양을 3가지 주제에 맞게 잘 정하는 것이다.

우선 성찬의 세 가지 성경적 요소를 최대한 살린다. 첫째, 기념(Remembrance)이다. 성찬 위원이 있다면 나와서 성찬보를 열고 준비하면서 아래 성경을 읽으며 시작한다. 모두 앞으로 나와 자녀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주고, 세례(침례) 받은 성도들은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신다. 그리고 찬양은 보혈의 찬양이 좋고, 물론 찬송가에서 선곡해도 좋다. 보통 빠르기로 "구주 예수 의지함" "주님의 보좌 앞에서" 등의 찬양을 앞의 중창단 또한 찬양대가 부르면서 인도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자유롭게 따라 부르도록 한다. 아래 성경 말씀을 한 번에 또는 2-3번 나누어 적절하게 낭송하거나 읽는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전 11:23-29)

성찬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성찬을 마친 성도들은 각자 회개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도를 한다. 어수선하지 않도록 동선을 지혜롭게 잘 만들고, 기념의 의미가 충분히 느껴지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좋다.

둘째, 감사(Eucharist)다. 떡을 떼면서 감사의 찬양을 연주하거나, 함께 부른다. 찬양을 함께해도 좋고, 연주를 해도 좋다. 또는 2-3명 함께 듀엣이나 중창으로 찬양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좋은 하나님” 앨리슨 헌틀리(Alison Huntley)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Thank you Jesus For Your Love To Me)” 등 감사에 대한

찬양을 선곡해야 한다. 다음 성경 말씀을 적절하게 낭송하거나 읽는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요 6:47-51).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요 6:58). 셋째, 교제(Koinonia)다. 성도 중 혼자 특송을 해도 좋고, 중창도 좋다. 주제는 어느 것도 괜찮다. 늘어지거나 어둡지 않은 찬양이나 찬송가로 우리의 신앙공동체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임을 알게 하자. 로저 스트레이더(Rodger Strader)의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만남을(Together)’ 토미 콤스(Tommy Coomes)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As We Gather)’ 등과 같은 찬양을 선곡하면 좋다. 그리고 아래 성경 구절들을 하나 또는 두세 구절 낭독하면서 간단한 멘트의 말씀을 전한다. 아래 성경 말씀을 적절하게 낭송하거나 읽는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고전 11:16-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6:53-57)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7-10)

“아버지께서는 모든 총명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19-20)



Christian Education Column

성찬은 성찬보를 덮는 중에 찬양 부를 곡을 반주하면서 마무리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만남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등과 같은 찬양을 부르며,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의 중요한 의미를 되살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나아간다. 하게 되었다. 하나에서 여럿으로, 같음에서 다름으로의 전환이란 바로 이를 일컫는 것이었으니 이미 현대의 시대정신은 여섯 개의 물음을 유기적으로 엮으면서 살아오는 삶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앞선 시대와 그렇게도 구별되는 변화였으니 이전 어느 시대에도 겪어보지 못했던 혁명적인 전환이었다. 그런데 이런 점이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잘 다가오지 못했던 것이다.

4. 통합 예배의 개념 인식

● 동기

첫째 왜 부모들의 신앙은 좋은데 신앙의 대는 이어지지 않는가? 둘째, 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대학, 청년부가 되어 약 5% 정도밖에 남지 않는가? 셋째, 왜 세대 차이가 크게 일어나며 부모 공경이 없는가? 넷째, 왜 주일 낮 예배와 다른 예배의 숫자가 큰 차이를 보이는가? 다섯째, 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교회, 가정, 학교, 사회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가? 여섯째, 왜 사회에 선한 영향력 있는 자로 살지 못하는가?

● 목적

통합 예배는 세대의 차이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으며 성숙한 신앙의 성장을 촉진하게 한다. 부모들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며, 자녀들을 구원받게 하고, 설교와 성만찬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지게 하는데 있다.

● 특수성

통합 예배의 특이성은 세대 간 시간이 같고 장소가 같으며 동일한 성경을 사용하고 같은 찬송가를 부르며 같이 설교를 받고 동일한 기도제목으로 기도한다.

● 참여도

오전 예배를 함께 드린 후 점심시간에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나누어 선생님들과 즐거운 식사를 한 후 지난주의 목사님 설교를 함께 나누며 실생활에 적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오후 예배에도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린다.

● 장점

동일 공간에서 동일한 시간에 같은 성경과 찬송가를 사용하며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동일한 찬송가로 찬양하며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므로 모든 신앙에 일체감을 이룬다. 어린이들의 언어가 달라지며 신앙 성숙이 빠르고 예배가 생동감이 넘치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다.

5. 통합 예배의 실제

1) 세대 예배의 목적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대하 20:13)

● 통합 예배는 ‘분절’이 아닌 ‘통합’,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지향한다.

● 부모-자녀-청소년의 3세대가 함께하는 가족공동체를 꿈꾼다.





- 교회마다 설치된 유아실은 ‘유배실’과 같으며, 영적으로 갈급한 엄마들은 전쟁을 치르다 돌아갑니다. 말씀 잔치에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되며, 소란스러움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학습한다.
- 부모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예배자로 서게 되며, 서로에게 좋은 격려자요 지지자가 된다.
- 오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학습이 있다.
- 교회의 예배를 넘어서 가정 예배가 살아 숨 쉬어야 한다.

2) 통합 예배의 목적

통합 예배의 목적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최대한 자녀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이들이 조금 떠돌고 혹 돌아다녀도 성도들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한다. 설교가 끝나고 모든 어린이를 위해 축복 기도해준다. 성경 말씀에 따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모두 앞으로 나와서 목사가 개개인 자녀들에게 축복기도를 해준다.

3) 발전 방안 및 요소

어린이들에게 영적 신앙의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 여러 방안들이 있지만 결국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근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 예배는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이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 어린이들의 영적인 강건함은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나온다.
- 지속적인 영적 습관을 통한 삶의 예배를 배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어린이들이 원하는 비본질의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배려해야 한다.
- 어린이에게 예배자라는 본질과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를 늘 인식시켜준다.

결론

오랫동안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는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예배의 형태로 드러왔다. 최근 들어 예배가 중요해지고, 분리해 드렸던 예배의 단점들이 노출되면서 함께 드리는 ‘통합 예배’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많아졌다.

통합 예배는 어린이들이 부모의 신앙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본질이다.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오랫동안 주일학교라는 테두리에서 느슨한 신앙 양육을 해왔다. 교회에만 가면 신앙이 자라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했다. 지금부터 교회를 비롯한 예배 공동체는 어린이들을 위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안에 속히 집중해야만 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찬양과 기도, 말씀이 요소인 예배밖에 없다. 주일학교라는 근대적 시스템의 장점은 남겨두고 큰 틀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통합 예배는 중요한 대안이다. 부모와 함께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부모 세대의 신앙 유산을 피상적이 아닌 실제적으로 전수할 수 있다. 갈수록 세속의 영향이 점점 커지는 이 시대에 어린이들을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잘 양육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길 밖에 없다. 이를 위해 교회와 예배 공동체, 가정과 부모 세대는 어린이들의 신앙이 잘 자라도록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점에서 통합 예배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갈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양육되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방안이다

My Utmost for His Highest

나의 순종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눅23:26)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도 희생이 요구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도 우리 때문에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긴장이 발생합니다. 주님을 깊게 사랑하면 그분을 향한 순종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순종이란 희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계획에 차질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렇게 빈정댁니다. "이것이 기독교란 말이지?" 우리는 이때 이 고통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이러한 고통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희생이 지불되도록 그냥 두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교만'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나는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피해를 주지 않을 생각이야."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면 오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와의 관계보다 다른 그 어떤 관계를 더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눅 8:2-3).

영적 침체는 아무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

로 하려고 할 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우주적인 목적과 너무나 깊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에 당장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충성스럽게 주님께 충성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길을 택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택할 경우 우리는 잠깐 그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는 근심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실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인해 발생될 결과들에 대해 주님께 이런 저런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주님과만 홀로 있기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막 4:34)

여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사건을 설명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설명하십니다. 그때까지 삶은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릴 자신의 영혼에 대해 상세하게 토로하도록 만드십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느려서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의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성품의 못나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얼마나 무지합니까? 다른 사람의 질투와 게으름과 교만을 보면서 자신의 질투와 게으름과 교만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기 전에 우리 안에 자리잡은 잘못된 성품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중 몇 명이나 용기있게 자신을 들여다보겠습니까?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헛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적 삶에서 가장 큰 저주는 기만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다 "

라는 말조차 못할 것입니다. 자신은 그러한 말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궁지에 몰아 결국 홀로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나 기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적 교만에 상처를 허락하셔서 지식에 실망케 하실 것이며 좌절감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적절한 애착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그 모든 애착을 버리고 홀로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듣는 정보와 지식은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셔서 설명해주실 때 비로소 배우고 들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



Prayer for Children

시와 찬미가 넘치는 가족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악기가 되게 하소서. 가정예배 시간에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가족이 둘러앉아 한영으로 찬양하는 것을 즐기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목소리뿐만 아니라 저마다의 악기를 동원하여 주를 찬미케 하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찬미케 하소서. 우리 가정을 날마다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케 하소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주님의 은총을 찬양케 하소서. 우리 가족의 앞길을 날마다 인도하시며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노래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다윗의 수금과 같게 하소서. 주를 향한 시와 찬미가 울려 나올 때 가정을 흔들려는 악한 영의 모든 의도가 무너지게 하소서. 비록 고난과 역경의 거친 파도가 일지라도 찬송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찾게 하옵소서. 찬송의 가사를 입술에 담을 때마다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영이 회복되게 하소서. 가족 사이에 작은 바람이 불어 서로의 마음이 상할 때에도 의지적으로 찬양케 하소서. 잠시 잊었던 사랑을 떠올리게 하소서. 주님이 내 자녀와 내 형제, 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상기하게 하소서. 그리고 눈물로 서로를 축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하나님의작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언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느끼게 하시고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
송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에베소서 5:19-21)



Korean Traditional Culture

공기를 던지고 받고 쥐면서 노는 놀이 '공기놀이'

[유래]

놀이의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윤덕희尹德熙(1685~1766)의 공기놀이 그림이나 조선 헌종 때 이규경李圭景이 지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둥근 돌알을 가지고 노는 놀이가 있어 ‘공기供奉’라고 한다. 둥근 돌알을 공중에 던져 손바닥으로 받고 이미 받은 것을 솔발 형태로 만드는 것을 솔발공기라고 한다.”라는 기록을 볼 때, 그 유래가 제법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서양에도 이와 유사한 놀이로 ‘잭스(Jacks)’ 또는 ‘너클본(Knucklebones)’이라 불리는 놀이가 있다. 놀잇감을 구하기 쉽고 놀이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여 오래전부터 여러 나라에서 놀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놀이방법]

놀이방법은 지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섯개의 공깃돌을 손바닥에 쥐고 그 가운데 한알을 위로 던져올리는 동시에 나머지 네알은 얼른 땅바닥에 놓은 다음, 던져올린 돌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는다. 그 돌을 다시 던져올리면서 땅바닥의 돌 한알씩과 내려오는 돌을 같이 잡기를 네번 한다.

돌을 잡을 때 옆의 돌을 건드리거나 내려오는 돌을 못 잡아서 실수하면 실력이 되어 차례가 다음 사람에게 넘어간다. 한알씩 잡기를 성공하면 두번째로는 두알씩 잡기를 두번 하고, 세번째로는 한번에 세알을 잡고 나머지 한알을 잡는다. 다음 네번째로는 땅바닥의 네알을 한꺼번에 쓸어잡고, 다섯번



째로는 다섯알을 다 쥐어서 던져올렸다가 손등으로 받고 난 공깃돌들을 다시 올렸다가 떨어지는 것을 다 한꺼번에 채어 잡는다.

그 다섯번째 채어잡기를 할 때, 손등에 얹었던 돌이 셋이면 3년, 다섯이면 5년으로 계산하는데, 손등에 얹었던 돌을 던져 올려 채어잡을 때 하나라도 놓치면 실력이 된다. 그래서 작은 손등에 얹힌 돌들을 손등을 움직여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채어잡기 좋게 조절하고 모으느라고 안간힘을 쓰게 된다. 손등에 공깃돌이 하나도 없지 않아도 실력이 되어 역시 공깃돌을 다음 차례에 넘겨주고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이 순서들을 실수 없이 성공하면 계속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되풀이해서 점수를 쌓아올라간다. 이 방법으로 할 때는 미리 몇 년 내기를 할 것인지 정해둔다. 그밖에 지역에 따라 다른 놀이가 추가되기도 하고 약간의 변형을 이루기도 한다.

또, 서로 돌을 많이 차지하는 내기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을 ‘많은 공기’라고 한다. 수십개의 공깃돌을 두 손에 모아쥐고 던져올려서 먼저 그 중 한알만을 잡는다. 이 한알을 던져올리고 땅바닥의 돌을 몇 개씩이건 잡을 수 있는 만큼 쓸어잡으면서 떨어지는 한알을 합쳐잡는다. 그때 바닥의 옆 돌을 건드리거나, 떨어지는 한알을 합쳐잡지 못하면 실력이 된다. 그렇게 해서 많이 잡은 사람이 이긴다.

이 놀이는 소녀들의 손재주나 운동신경 그리고 대인관계의 훈련 등에도 도움이 되고, 아울러 조심성과 침착성도 길러주는 놀이라 할 수 있다.



동영상 보기 : 공기놀이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KCDF))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진놀이의 어린이 버전 '나이먹기놀이'

[역사]

진놀이는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이며 각 지역별로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진놀이에 대한 기록은 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견적록』에서는 조선 중종 때 어떤 사람이 제자들을 데리고 음모를 꾸민다는 제보를 듣고 아이들을 체포했는데, 알고 보니 남산에서 진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진놀이는 군에서 훈련 목적으로 만들어진 놀이라고 한다. 너무 재미있는 훈련이어서 군인들이 훈련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가서도 계속하다가 아이들에게 퍼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견적록의 기록을 통해 조선 중기에 널리 퍼진 것을 보면 최소한 조선 전기에는 시작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의 향토오락(1941)』에서도 전국에서 이 놀이를 볼 수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제강점기 이 놀이가 아이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는지 짐작할 만하다. '나이먹기 진놀이'는 초등학교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개량된 형태이다. 필자도 어린 시절(70~80년대)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이 놀이에 빠져 해가 지는 것을 잊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놀이 방법]

- 두 편으로 나눠서 진을 정한다.
 - 진은 기둥 모양으로 된 것이 좋다. 전봇대, 농구 골대, 철봉, 나무 등이 대표적이다.
 - 주위에 기둥을 찾기 힘들면 땅바닥에 원을 그려 진으로 삼아도 된다.
 - 진과 진 사이의 거리는 사람 수, 키에 비례해 적절히 벌린다. 대략 참가자 키를 모두 더한 것의 두 배 정도는 벌리는 것이 좋다.
 - 주변에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더욱 좋다.
- 자기편 진에 모여서 게임을 시작한다. 초기 나이는 모두 5살(또는 10살)이다.
- 같은 나이인 사람끼리 치면 가위바위보로 승부를 갈라 이긴 사람이 2살을 더 먹는다.(최초 5살이었다면 7살이 된다.)
 - 신체 어느 부위든 접촉하면 된다.
-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상대방 사람을 치면 2살을 더 먹는다.(나이가 적은 사람의 나이가 깎이지는 않는다.)
- 같은 편끼리 손을 잡으면 모두의 나이를 합한 상태가 된다. 이 상태에서 상대를 치거나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각각 2살씩 나이를 먹게 된다.
- (예) A(7살), B(9살), C(11살)이 손을 잡으면 27살이 되는데 이

상태로 상대편 D(5살), E(7살), F(9살) 손을 잡고 있는 세 사람과 터치하면 6살이 더 많으므로 가위바위보 없이 승리하여 A, B, C는 각각 두 살씩 더 먹게 된다. D, E, F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6살 이상의 아군을 한 명 더 데려와 손을 잡고 터치해야 한다.

- 자기편 진을 잡고 상대방을 치는 사람은 무적이다. 상대가 몇 살이든 자신의 진을 잡은 사람이 승리하여 두 살을 먹는다. 이때, 진을 잡고 있는 다른 우리 편도 두 살씩 먹는다.
- 상대방의 진을 치면 10살을 먹는다. 그러므로 나이가 적은 상대방은 진을 잡고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
- 상대를 치거나 혹은 당하거나, 상대의 진을 치면 그 상태로 더는 공격할 수도 공격받지도 않는 보호 상태가 된다. 반드시 자신의 진에 돌아와 자신의 진을 터치해야만 보호상태가 다시 풀려 게임을 돌입할 수가 있다.
- 정해진 시간 내에 나이를 많이 먹거나, 목표 나이를 먼저 넘어선 팀이 이긴다.

[전략 전술의 중요성]

이 놀이는 훈련용으로 만들어진 만큼 전략전술의 중요성을 학습할 수가 있다. 중원에서 시선을 끌다가 몰래 움직인 사람이 상대의 진을 칠 수 있고, 점수가 낮은 사람이 과감히 앞에 나와 미끼 역할을 자처할 수 있다. 진을 잡고 수비하는 척하다가 바로 튀어나가 점수가 낮은 상대를 치는 페이크 전술도 가능하다. 상대의 나이가 많은 경우 우리 편과 손을 잡고 함께 움직이며 협동해야 한다. 혼자서 쓸 수 있는 전략 전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은 편과 소통해 호흡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매순간 나이를 더하거나 빼는 암산 연습을 하게 되기도 한다. 민첩하게 움직이고 뛰어야 하므로 순발력이 길러지고 운동능력이 발달되는 놀이이다.



동영상 보기 : 나이먹기 (학교체육진흥회) 참고

01.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하늘 군대

기도 | 왕이신 하나님, 저희와 늘 함께하시며 지켜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삶에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말씀 | 열왕기하 6:13~17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아람 왕은 치밀한 작전을 세워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람 왕이 보낸 많은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통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불 말과 불 병거(전차)로 엘리사를 지켜 주셨어요.

나눔 | 1. 엘리사의 종은 무엇을 두려워했나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요?(15~17절)

2. 나는 두려운 상황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나요? '믿음의 눈'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나눔 | _____

기도 |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저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때마다 함께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믿음의 눈을 단련해,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를 이어 가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2. 비참한 죽음, 죄에 대한 심판

기도 | 하나님, 저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깊이 알아 가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세요.

말씀 | 열왕기하 9:30~35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하나님은 예후를 북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아합의 집안사람을 심판하셨어요. 특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북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퍼뜨린 장본인이예요. 이세벨은 죽음 직전까지도 교만하게 행하며 예후를 무시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이세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나눔 | 1.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죽음은 어떠했나요?(33, 35절) 그녀는 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왕상 16:31; 18:4; 21:15; 왕하 9:7 참조)

2.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분이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잘못은 없는지 돌아보세요.

나눔 | _____

기도 | 하나님, 죄로 인해 심판과 멸망이 예정된 저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심판보다 구원 베풀기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일에 힘쓰도록 도와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3. 하나님 백성의 바른 결단

기도 |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평안으로 지켜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가족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게 해 주세요.

말씀 | 열왕기하 11:17~20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 다윗 왕조를 부활시키고, 왕과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언약을 맺게 했어요. 그러자 백성이 바알 제단을 깨뜨리고 바알 제사장을 죽이며 바른 신앙의 길을 걸었어요.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행하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즐거움과 평안을 주셨어요.

나눔 | 1.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는 언약을 맺도록 도왔어요. 그러자 백성이 무엇을 했나요?(18절)

2.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일지 함께 나누고, 나의 일상에서 그것을 적용하기로 다짐해 보세요.

나눔 | _____

기도 |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자녀 된 권세를 소중히 여기고 일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원해요. 어떤 우상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으로 인정받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4. 하나님의 징계와 신실한 사랑

기도 | 하나님, 저희 가족이 예배를 우선시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 시간 하나님 품에 있는 것 같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겁게 배우게 해 주세요.

말씀 | 열왕기하 16:1~5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유다 왕 아하스는 다윗과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옳바르지 못한 왕이었어요. 그는 북 이스라엘 및 다른 나라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온갖 죄를 저질렀어요. 아람과 북 이스라엘이 연합해 공격한 것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유다를 그들에게 넘기지는 않으셨어요.

나눔 | 1. 유다 왕 아하스가 저지른 악한 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요?(2~5절)

2. 요즘 내가 무심코 따라 하거나 행하는 일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나눔 | _____

기도 |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연약한 저희를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니 감사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Storytelling

가족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05.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왕

기도 |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예배하길 원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배우고 따르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 열왕기하 18:3~8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산당과 우상을 없애고, 과거 모세 시대부터 내려온 놋 뱀 우상도 부숴서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모든 계명을 지키려 힘썼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시며 그가 어디를 가든지 잘되게 하셨어요.

나눔 | 1. 성경은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다고 평가하나요?(3~6절)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7~8절)

2.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믿음의 결단은 무엇인가요?

나눔 | _____

기도 | 하나님, 모든 복과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않게 해 주세요. 저희 가족이 살아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능자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6.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왕

기도 | 하나님, 저희 가족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되게 해 주세요.

말씀 | 열왕기하 19:14~19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앗수르(앗시리아) 왕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 선전 포고용 편지를 보냈어요. 히스기야는 두렵고 답답했지만, 앗수르 왕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는 성전에 올라가 산헤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퍼 놓고 기도했어요. 살아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예요.

나눔 | 1. 앗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했나요?(14~15절) 그는 하나님께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나요?(15~19절)

2.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 내며 기도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나눔 |
.....
.....

기도 | 하나님,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가장 먼저 기도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저희 가족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7. 마음 다해 말씀을 이루는 왕

기도 | 살아 계신 하나님, 저희 가족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어요. 말씀을 읽고 나눌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지키게 해 주세요.

말씀 | 열왕기하 23:21~25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요시아는 백성과 함께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중요한 절기예요. 사사 시대부터 요시아 시대까지 요시아처럼 유월절을 지킨 왕은 없었어요. 요시아는 마음과 뜻(정신)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왕이었어요.

나눔 | 1. 요시아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모두 찾아보세요(21~25절).
2. 요시아의 모습에서 내가 본받고 싶은 면은 무엇인지, 오늘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나누어 보세요.

나눔 | _____

기도 | 하나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에 불순종한 때가 많았음을 고백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단호히 버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해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8. 말씀을 듣고 배우는 바른 자세

기도 |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예배를 통해 저희 가족의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커지게 해 주세요.

말씀 | 데살로니가전서 2:13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 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빨리 성장한 이유는 '말씀을 듣는 자세'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했어요.

나눔 | 1.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받아들였나요?(13절)

2. 지금까지 공적 예배 혹은 개인 QT 때 말씀을 받는 나의 자세는 대체로 어떠했나요? 앞으로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나눔 |

기도 | 하나님, 저희가 자유롭게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따르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머무는 복을 누리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9.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기도 | 하나님, 저희 가정의 목자가 되셔서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속에서 선하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세요.

말씀 | 데살로니가전서 5:16~18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바울은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가장 바르고 복된 삶이에요.

나눔 | 1.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요?(16~18절)

2. 오늘 말씀 중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오늘부터 일상에서 실천할 작은 습관을 하나씩 정해 보세요.

나눔 |

기도 | 영원한 기쁨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 저희 가족이 쉽게 흔들리는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해요. 날마다 우울함이 아닌 기쁨을, 나태함이 아닌 기도를, 불평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P : (213) 388-1000
E : pcce@mail.com
w : www.pcce.wmu.edu

A : 500 Shatto Place Suite 200.
Los Angeles,
CA 90020

